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8 호

총기 52년 제101회 추계 강공회 개최

깨달음을 향한 교육 불사의 장, 신규 스승 임명도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승비밀불교의 수행법과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생제도의 길과 방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기 52년 제101회 추계 강공회가 종조참배대례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공회는 종령 범공 예하를 비롯한 전국 스승 50여 명이 참석해 수행을 점검하고, 신규 스승 1명이 새로 임명됐다. 강공회에 앞서 전날인 17일에는 제204회 원의회 및 제136회 재단이사회, 제166회 정기 중앙종의회가 열렸다. 이들 회의에서는 총기 52년 추경 및 53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했다. 2면으로 이어짐

부처님 법처럼 한결같은 자연과 함께

기로 스승, 전라남도 순천 일대에서 관불

지성, 수종원, 연등원, 지희심, 정정심, 진일심, 지공 스승
총지화, 자선화, 선도원 스승

진언행자로서 불공정진과 교화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 하다 기로원에 든 기로 스승들의 모임 ‘반야회(회장: 지공 정사)’가 가을 한복판에서 관불을 다녀왔다.

2박 3일 간 펼쳐진 추계 관불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순천 일대에서 진행됐다. 총지화 전수를 비롯한 10명이 참석하였으며, 통리원 이수협 차장을 비롯해 부산 정각사 김부강 대리 등 종무원 10명이 동참해 일정 내내 스승 곁을 지켰다. 종무원들은 자리를 함께하며 스승들말씀으로 심신을 충전하고, 행사 안내는 물론 미소로 스승들의 관불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참석자들은 순천시 낙안에 한옥 펜션을 숙소로 마련하고, 낙

안 온천, 순천국제정원, 순천만 습지, 낙안읍성 등을 돌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서로 간에 수행을 점검하고 신심을 높였다.

때마침 순천은 10월 31일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가을이 수놓은 자연과 함께 정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역만 송이 국화로 가득 채워진 국가정원, 가을바람에 넘실대는 코스모스와 은빛 갈대와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순천만 습지 등은 스승들의 기쁨처럼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라는 특별한 맛을 한껏 내주고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스승들은 부처님 법을 닮은 한결같은 자연의 섭리를 체득하며, 중생구제와 중단 발전의 원력을 다졌다.



‘꽃보다 할매 할배’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 수인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2023 꽃보다 할매 할배 효사랑 잔치’가 지난달 21일 수인사 뒷편 꿈트리센터 야외정원에서 개최됐다. 기사 12면

종/조/법/어

심지않고 열매를 따려는 것과 꽃이 없는데 나비를 청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느니라

지 면 안내

5면 이달의 왕생법문

8면 밀교법장담론

9면 교도수행체험담8

12면 수인회 창립 10주년 특집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6주년

1967년 11월 27일 설립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선대 열반 스승 왕생성불 발원 추천불사도 봉행

1면에서 이어짐

또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신임 이사에 행원심 전수(밀행사 주교)를, 또 1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종립 동해중학교 감사 남해정사(단음사 주교)를 연임하였다. 이밖에도 중앙종회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 및 승직법, 법륜회 회칙, 기로승법 등 일부 법규 개정의 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 사항을 결의하였다.

지송자(持誦者)의 공덕, 생사를 버린 정진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으로 강공회의 막을 연 입재불공에서는 신규 스승 지명(持明)전수에 대한 사령장 및 법의 수여식이 봉행됐다.

법공 종령 예하는 이 자리에서 “진언, 다라니를 한문으로 ‘명(明)’이라 하고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진언을 항상 지니고 입으로 지송하면 한량없는 복덕과보를 받는다고 했다.”면서 신규 스승의 불명을 지명(持明)으로 내린 것에 대한 뜻과 함께 지송자(持誦者)의 공덕을 설파했다.

이후 공식 불공 시간에는 유가해 전수(만보사 주교)의 집공으로 법석을 이어나갔다. 설법시간에서 유가해 전수는 『불교총전』 중 ‘생사를 버린 정진’에 관해 설하며 “바다에 보석을 빠뜨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제쳐놓고 바닷물을 퍼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스승들도 생사를 뛰어넘는 불공이 필요하다.”며 수행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령 강훈, 참된 진언행자의 자세

이어 종령 강훈 시간에서 종령 법공 예하는 <선가귀감>의 ‘진식여진독(進食如進毒), 수시여수전(受施如受箭)’을 인용해 참된 진언행자로서 스승의 자세에 대해 법문을 이어갔다. 종령 법공 예하는 말씀을 통해 “도를 닦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고, 시주를 받을 때는 화살을 받는 것과 같이 하라는 뜻.”이라며 “수행자로서 스승의 본분을 다시금 깨닫고 수행정진으로 지혜를 밝혀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단총회, 사회법 개정에 따른 중무행정

이어진 제151회 승단총회에서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종단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제정에 따라 종단도 스승 정년 등 개정법에 맞춰 중무행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승단총회에 앞서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외부 강사 초청 강연에서는 ‘ChatGPT와의 대화’, ‘한국 MZ세대와 불교’ 내용을 다루며 종단의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에 대해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강공회 마지막 날에는 법륜사 정계월 전수 집공의 공식불공에 이어 종단 발전과 교화의 밑바탕이 된 선대 열반스승님들의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추천불사가 엄수됐다. 1박 2일간 쉴 새 없는 깨달음을 향한 용맹정진으로 제 101회 추계강공회는 회향불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재원·김상미기자

① 제101회 추계 강공회 참석한 스승 ② 법공 예하의 신규 스승 지명 전수 사령장 수여
③ 선대스승 추천불사 모습 ④ 제166회 정기 중앙종의회
⑤⑥ 설법 중인 유가해 전수와 정계월 전수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부산 정각사, 중앙절 합동 천도재 봉행



제불보살님과 일체인연 영가 공양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는 지난 10월 23일 중앙절을 맞아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불공을 정각사 2층 득락전에서 봉행했다.

범일 정사 집공으로 50여 명의 교도가 동참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불공은 제불보살님과 선망부모 및 일체인연 영가님들께 감사의 공양을 올리며, 모든 영식들이 이승의 미련을 훌훌 벗어버리고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나길 기원했다.

가을 하늘 속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을 찾다

총지사 괴산 수련원, 지인사·운천사 관불, 정각사 수계

전국 사원에서는 교도들의 심신을 달래고 불심을 증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는 10월 25일 스승과 간부 교도들이 괴산 수련원을 방문해 수행계획을 세우고, 중원사 서원당에서 불공을 올렸다.(사진1) 인천 지인사(주교: 범우 정사)는 교도들과 함께 인천대공원을 찾아 계절을 만끽하며, 우의를 다졌다.(사진2)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도 10월 23일부터 휴휴암, 신흥사, 월정사를 관불하는 2박 3일 간의 삼사순례를 마쳤다.(사진3) 이에 앞서 정각사는 10월 18일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팔관제수계법회에서 참석해 주교 범일 정사가 16증사 아사리로, 이항숙, 김팔연, 김정연 교도가 수계를 받았다.(사진4)



미래 사회의 종교

지혜의 눈

과학혁명엔 산업발전 외에 철학과 심리학에도 영향
염승과 참선,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으로 진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각종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종교인구의 감소는 특히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인구 감소는 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복지정책의 확대에 의한 종교 역할의 감소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출산율이 높고 복지정책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종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종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예측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인간의 생존능력이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담당하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과학이 그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근대사회가 가능했던 사건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꼽았는데 요즘은 과학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부피가 많은 마지막 장의 제목이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산업과 기술이라는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식론(認識論)과 같은 철학이나 심리학의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교가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끼친 분야는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로, 특히 뇌의 가소성(可塑性)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불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관 내지 우주론이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인식상의 변화인데, 우주의 구조를 특정한 중심이 없이 일종의 망(網)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불교적 세계관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종교가 사라질까요?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남아있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각각의 비중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생(共生)할 것입니다. 근대의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관용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관용은 여전히 선과 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관점이고 세상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입장입니다. 현대 사상은 그 중심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상생적 공존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불교신자는 전인구의 1%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를 3억 5천만이라고 한다면 불교신자는 대략 3백 5십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비롯한 명상(冥想)을 하는 인구가 대략 15%인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명상을 불교와 연결시키지 않거나 설사 불교적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존의 자기 종교와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상수행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종교가 어떤 갈등도 없이 한사람의 내면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터교의 목사인 폴 틸리히(Paul Tillich) “모든 살아있는 종교의 깊이에는 종교 자체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경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모든 종교의 궁극에는 특정 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교리가 있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틸리히의 말은 임제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 종교의 교조를 부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에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참선을 하면서도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밀교의식은 부처님의 체험을 상징 통해서 행자가 따라하는 것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3. 밀교의식(密敎儀式)

밀교란 의식을 주(主)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特定)한 시기(時期)에 다른 질서(秩序)가 지배(支配)하는 그것이 의식이요 제전(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特色)이다. 예를 들면 도량(道場), 불단(佛壇) 등과 용구(用具), 언어(言語), 행동(行動) 등이 구별(區別)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時間), 공간(空間), 물체(物體), 동작(動作), 언어 등이 성(聖)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相對)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世俗的)이라고 하고 순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적(出世間的)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莫論)하고 비밀적(秘密的)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 에 따라 그 비법을 수습(修習) 또는 체득(體得)하는 것이 본령(本領)으로 되어 있다. 여타(餘他)의 종교보다 불교에서 비법이 많고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밀교라고 하겠다.

불교를 대별(大別)하여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교설(敎說)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漸次) 박달하여 왔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실은 불타자신(佛陀自身)의 교설중에는 이 모든 것이 최초(最初)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部分別)로 중점(重點)을 두어서 전해 왔음으로 어떠한 계통(系統)은 소승(小乘), 어떠한 계통은 대승(大乘), 어떠한 계통은 밀교(密敎)라는 등 상이(相異)한 경향(傾向)이 평행(平行)하여 발전(發展)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경전(小乘經典)이라고 하는 아함경(阿含經)이나 파알리어성전(聖典)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要素)가 포함(包含)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일례(一例)가 될 것이다.

註 - 1. 밀교의식에 대하여 부연(敷衍)해 둔다. 밀교의 본질을 요약하면 첫째, 「심비성(深秘性)」을 들 수 있다. 언어(言語)나 논리(論理)로서는 최고아(最高我), 우주전체상(宇宙全體相) 등의 진실(眞實)을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 실재(實在) 진실(眞實)은 그러한 실재성(實在性)을 초월한 곳에 있다. 그러므로 밀교의 본질(本質)의 제일은 심비성(深秘性)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비(深秘)한 것이 그대로 공개(公開)되지 않고 방치(放置)된다면 그것은 「심비(深秘)」 「밀(密)」이라 할 수 있어 도 「교(敎)」라고는 할 수 없다. 여래(如來)의 자내증(自內證) 그 심비한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일상적(日常的), 논리적(論理的), 공개적(公開的)일 수는 없다. 일상적, 논리적, 공개적이 아닌 표현수단이 있다고 하면 무언(無言)의 표현(表現) 또는 상징적(象徵的) 방법(方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의 표현」은 표현이 아니다. 대부분(大部分)의 대승불교 경전은 이것으로서 그 진실성(眞實性)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유마경(維摩經)」에 있어서의 ‘유마(維摩)의 일묵(一墨)’ 같은 이러한 것을 초월(超越)하려는 것이 밀교 제2의 과제(課題-밀교적 표현,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현교(顯敎)에서는 「인분가설(因分可說) 과분불가설(果分不可說)」 - 인간의 원인(原因) 수행(修行)의 단계는 설할 수 있어도 불(佛)의 결과(結果), 깨침의 단계는 설 할 수가 없다.」로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불가설(不可說)한 「과분(果分)」을 기어이 「가설(可說)」로 성취(成就)시켰다. 그것이 상징적 표현 수단이며 제2의 밀교의 본질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대별(大別)된다. ①신체(身體)에 의한 상징(象徵)인 신밀(身密) ②입에 의한 상징인 구밀(口密) ③마음에 의한 상징인 의밀(意密) 이 세 가지의 상징인 삼밀(三密)은 전신적(全身的) 상징이 밀교 제2의 특징이며 실질적(實質的) 내용(內容)이 된다. 즉 심비성, 공개성이란 두 가지의 상반(相反)된 성질이 밀교 속에는 있다. 또 하나의 본질은 제3의 특징인 의례(儀禮)이다. 이와 같이 표현된 불의 세계를 관망(觀望)하는 것만으로는 인간구제(人間救濟)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다. 표현된 상징을 해독(解讀)하여 역(逆)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自身)에게 재기(再起)시키는 것, 환언(換言)하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佛)의 체험(體驗)을 상징을 통하여 행자(行者)가 추체험(追體驗)하는 것이다. 이 해독(解讀)의 규칙(規則)이 과학적(科學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整理)되어 있다. 이것이 밀교 실천규정(實踐規定)인 의례(儀軌)이며 구전(口傳)과 더불어 방대(尨大)한 내용(內容)으로 되어 있다. 의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에 미루기로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르고 원만한 지혜를 완성한 직후 사자후를 설하셨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들어 가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며 이제 여래의 세계를 선포하노라.” 하지만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다. 오욕의 파도에 휩쓸려 있는 중생들이 당신이 깨진, 욕망 세계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곧, 한량없는 겁 동안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보리를 구하고자 했던 본래 서원을 떠올리고, 부처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낸 부처님께서는 감로의 법을 열리라 선언하셨다. 깨달음의 기쁨과 환희를 누렸던 49일은 삼계에서 해매는 중생들의 고통을 가슴 깊이 느끼며 당신께서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정리한 시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논리로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12연기 등의 교리로 체계화되었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자내증의 경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마음을 직시해야 청정한 본성을 볼 수 있고 번뇌와 욕심의 불길을 잠재워야 열반에 다다를 수 있으니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는 언감생심 가닿을 수 없는 경지다.

교설만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끝내 불자들이 의지할 것은 부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후학들은 교학 연구를 거듭했고 그 결과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가 어디에서 톱 하고 불현 듯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팔만사천 교설에서 찾아낸 것이다.

교설에 대한 오해와 집착을 막기 위해 침묵을 내세우기도 하고 선종에서는 언어

를 여윈 진실한 마음법을 찾기 위해 고향을 지르고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새로운 논리의 언어인 화두법문을 던지기도 했다. 밀교에서는 진언과 만다라와 수인 등 상징적인 표현수단으로 진리의 세계를 그렸다. 문자를 떠나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자 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장 적절한 언어와 논리를 찾은 셈이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 못지않게 그 진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마음을 밝히는 세 가지 지혜, 즉 문자수 수행이다. 들어서 얻는 지혜, 사유해서 갖추는 지혜, 그리고 닦음으로 완성되는 지혜이다.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들어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것을 스스로 거듭 기억하고 되새기고 사유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선정을 닦고 자비보시의 공덕을 쌓아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너무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를 범부중생은 도저히 깨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유하고 닦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처님의 경지를 상상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밀교 의식이다. 거칠게 말하면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을 그대로 따라 하며 그 경지를 맛보고, 그 경험을 거듭 연습하여 체득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구의 삼밀 수행이다. 방대하고 과학적인 삼밀의례 수행을 모두 실천할 수는 없다 해도 이 또한 초학자부터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밝아나가는 것이 순서일 터다.

앞으로 『종조법설집』을 통해 부처님께서 깨치신 세계를 몸과 언어와 마음으로 구현하는 밀교행자의 삼밀의례 실천체계를 차근차근 배워보리라 다짐해본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

“삶의 양을 따지려면 밤낮없이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야겠지만,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비우는 일에
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엄연한 우주질서 앞에 조금도 두려워 할 것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이기에.

해가 넘어간 뒤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 저녁놀의 잔영을 우리는 언제나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 순하디 순한 빛깔을! 사람의 마음을 빛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빛깔을 띠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세월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결같건만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려면 고요한 침묵이 따라야 하는데 시끄러움에 중독된 이 시대의 우리들이 그 침묵을 익히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만하면 초라한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 봐서인지 바깥 소리를 찾아 이내 뛰쳐나가 버립니다. 침묵을 익히려면 밖으로 쳐다보는 일보다는 안으로 들여다보는 일을 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질보다는 양을 내세우는 오늘의 이 땅 위에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텅 비워야 매아리가 울리고 새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갖 집착과 굳어진 관념에서 벗어난 텅 빈 마음이 우리들을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불가(佛家)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림이다.
자기를 잊어버림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

자기를 텅 비울 때
체현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은 비로소 자기가 된다.”

즉, 자기 마음을 텅 비울 때 본래 적인 자아, 전체적인 자기가 통째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자기 존재를 마음껏 전개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구실을 하기 어려운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가려면 하루 한 때라도 순수한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하는 새로운 길들이 있어야 합니다. 얽히고설켜 복잡하고 지저분한 생각이 죄다 사라져 버린 순수 의식의 상태, 맑게 갠 날 해가 진 뒤의 그 순하디 순한 놀빛 같은 무심이 일상에 찌든 우리들의 혼을 맑게 씻어 줄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던 생각을 일단 놓아버리고 텅 비울 때, 새로운 눈이 뜨이고 밝은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은 전체에서 볼 때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지를 바로 보려면 바다도 함께 보아야 하고, 밝은 것을 보려면 어두운 것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제대로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을 바람직한 쪽으로 잘 쓰면 얼마든지 창조하고 형성하고 향상하면서 삶의 질을 거듭거듭 높

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력을 가지고도 한 생각이 비뚤어져 잘못 써서 버릇이 되면 그것이 업력이 되어 마침내는 자기 자신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생명력이라도 서로 다른 지배를 받아 한 장미나무에서 한 갈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다른 갈래는 독이 뱀 가시로 돌아납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삶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일은 아무리 그럴 듯한 말로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결과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둘레의 대기에 파장을 일으켜 영향을 끼칩니다.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착한 파장으로 밝은 영향을 끼치고, 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또한

착하지 못한 파장으로 어두운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고통을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그 생명력을 값있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부질없이 탕진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양을 따지려면 밤낮없이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야겠지만,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비우는 일에 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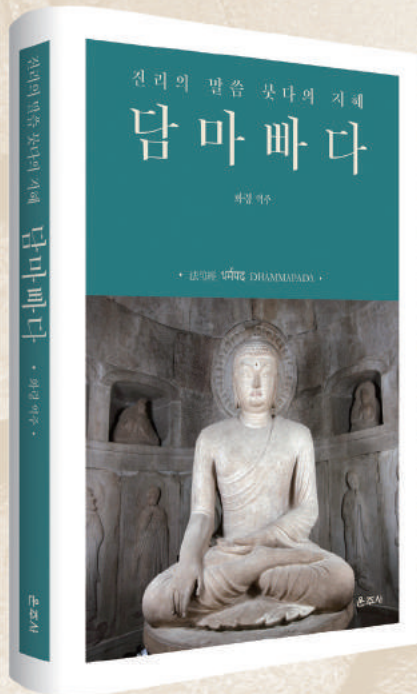
깊어가는 가을밤, 풀벌레 소리에 귀를 모으면서 오로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 봅시다.
총기 32년 10월 이달의 설법문안



온갖 집착과 굳어진 관념에서 벗어난 텅 빈 마음이 우리들을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 리 의 말 씀 붓 다 의 지 혜

담 마 빠 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총지법장’, ‘응화성전’ 편찬, 밀교로서 무명의 법계를 비추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5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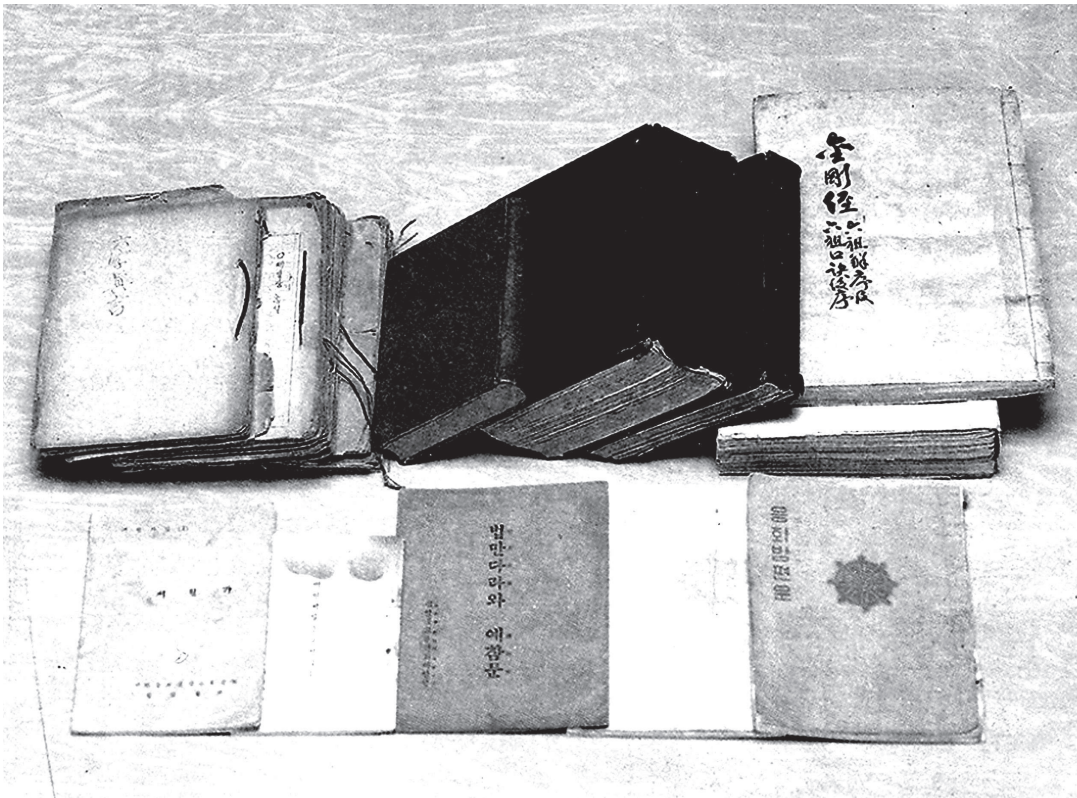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각종이라는 밀교 종단에 맞는 경전의 번역과 그에 따른 교리의 정비인데, 이 일은 교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불사였다.

1957년 8월부터 역경사업의 큰 틀을 잡고, 9월에는 ‘심인불교 금강회 해인행(心印佛教 金剛會 海印行)’ 출판사를 설립하여 경전 간행 업무를 시작한다. 회당 대종사가 역경작업의 책임자로 나서고 실무작업의 진행은 대성사가 맡아 밀교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국불교사에 처음 있는 밀교 경전 집대성과 역경작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서울 밀각십인당은 역경 불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역경은 대성사의 평생 숙원이 됐는데, 한학에 정통하여 한문 경전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문헌까지 찾아 경전을 선정하고 직접 번역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원력을 다했다. 밀교의 주요 경전인 대일경, 보리심론, 보리심의 등을 번역했고, 현교에서도 수행에 참조가 되는 심지관경(보은품), 육야경, 유마경, 반야심경 등을 골라 번역해서 밀교의 교리와 수행의 지침이 되도록 했다.

밀교 경전뿐 아니라 현교 경전까지 번역한 것은 경에 대한 대성사의 뚜렷한 이해와 불교관 때문이다.

“불교를 크게 나눠 소승, 대승, 밀교의 셋



사진자료=진각종 70년사 중 역경착수-교리확립(1957.8.13.-11.25) 편 중에서

“ 불교를 크게 나눠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는 설도 있다. 사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 중에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

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는 설도 있다.

사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 중에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로 중점을 두어서 전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계통은 소승, 어떠한 계통은 대승, 어떠한 계통은 밀교라는 등의 서로 다른 경향이 함께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 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

나 파알리 성전 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실례로 유마경 속에 드러나는 밀교의 가르침을 들었다.

“표현수단에는 일상적, 논리적, 공개적인 것이 있다.

그 밖에 말을 떠난 표현수단은 무언(無言)의 표현 또는 상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의 표현’이라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승불교 경전은 ‘무언의 표현’으로써 말을 떠나 전해진 진실과 그 진실한 가르침을 표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유마 거사가 입을 다물어 침묵한 ‘유마의 일묵(一墨)’이 있는데, 이런 애매함을 초월하려는 것이 밀교 제2의 과제가 되어 상징적인 밀교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현교에서는 인간의 원인(原因)인 수행(修行)의 단계는 설할 수 있어도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를 이루는, 깨침의 단계는 설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현교에서 ‘인분가설(因分可說) 과분불가설(果分不可說)’이라 한 내용이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과분’을 기어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설’로 성취시켰다.

그것이 상징적 표현 수단이며 제2의 밀교의 본질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대별(大別)된다.

첫째 신체에 의한 상징인 신밀(身密)과 두 번째 상징인 구밀(口密), 셋째로 마음에 의한 상징인 의밀(意密)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과 수행의 성취를 드러낸다.

세 가지의 상징인 삼밀(三密)은 전신적(全身的) 상징이 밀교 제2의 특징이며 실질적 내용이 된다. 즉 신비한 경지를 깊이 체득하는 심비성(沈秘性)과 깨달음이 드러난 공개성이란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이 밀교 속에 있다.

또 하나의 본질은 제3의 특징인 의례(儀禮)이다.

현교에서 말로 표현된 부처의 세계를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는 인간구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표현된 상징을 해독하여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그렇게 실현하는 것, 말을 바꾸자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佛)의 체험을 상징을 통하여 수행하는 이가 추체험(追體驗), 즉 따라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 해독의 규칙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분석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밀교 실천규정인 의궤(儀軌)이며 구전과 더불어 방대한 내용으로 남아 있다.”

밀교 경전은 애매한 언어의 표현을 넘어 실제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있다는 것이다.

현교가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밀교는 의례와 신비적 수행을 통해 다가설 수 있는 실질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전에 대한 대성사의 확고한 견해는 남긴 계승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시방삼세 나타나는 일체 모든 사실들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은 법신불의 당체로서 활동하는 설법이라 밀(密)은 색(色)을 이(理)로 하여 일체세간 현상대로 불의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이니 체험이 곧 법문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

현교경은 문자로서 유식해야 알게 되고 밀교경은 삼밀로서 무식해도 알게 되네 오직 삼밀 행자만이 이 법문을 보는 고로 유식무식 차별 없이 각각 자기 환경 따라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능히 나눠 알게 하게 되니 좋은 길을 버리고서 나쁜 길을 누가 가라 선악인과 밝게 알아 고 여의고 낙 얻으며 무진법문 넓게 아니 깨쳐 성불하게 된다.”

역경작업과 더불어 교화에 참고가 되는 경전의 편찬 작업도 시작하였다. 밀교 교리와 역사를 정리한 ‘총지법장’과 경전 삼장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뽑아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응화성전’의 편찬과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법계의 감응이 있어 불사의 인연이 닿아 대구 청구대학의 불교 관련 문헌들을 양도받게 되는데, 그중 밀교 관계 도서들을 확보하게 된다. 대성사는 그중에서 옥과 돌을 골라내고 체계를 잡아 번역하고 편찬해갔다. 이 중 대한 불사는 모두 대성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집된 밀교 경전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현대 한국 밀교의 귀중한 자산으로 무명의 법계를 비추고 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금강같은 정진으로 법석마다 환희심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 전 교도가 함께하는 연합법회

교구별 합동방생법회
전국의 40여 개 사원은 개설 초기부터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족처럼 활동했다. 먼저 개설한 사원이 인근에 개설한 사원을 돕고 이끌어주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서울경인, 충청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교구 체제를 공고히 했다. 교구장과 신정회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교류 협력하면서 동반 성장을 꾀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후 사원별로 방생법회를 봉행하던 전통은 1980년대 들어 교구별 합동방생법회로 발전했다.
1983년 평화통일과 천만 이산가족의 조속한 해후를 발원하는 합동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부산경남교구 2,500여 명의 교도들은 7월 16일 부산시 구포 하천에서, 대구경북교구 300여 명의 교도들은 기림사 입구 호반에서, 그리고 서울경인교구 300여 명의 교도들은 7월 18일 화양계곡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교도들의 화합과 소속감을 다지는 교구별 합동 방생법회는 2년마다 이어져 1985년 7월 16일 부산경남교구 2,000여 명의 교도들이 경남 하동 섬진강변에서 호국안민 방생대법회를 개최하고, 1987년 7월 16일 부산경남교구와 대구경북교구 연합으로 호국안민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밀양군 산외면 기회송림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전·현임 종령과 통리원장 등 종단 임원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3,000여 명의 교도가 운집하여 KBS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고 행사장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다음날인 7월 17일에는 서울경인교구 350

여 명의 교도들이 경기도 광릉 숲에서 합동 호국안민 방생대법회를 봉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기원했다. 1991년 부산경남교구 3,000여 명의 교도들은 광복 46주년과 한국전쟁 41주년을 맞이하여 경북 영일군 화진해변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한 49일 불공 회향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등 국민안과 유주무주의 고혼을 천도하는 불사를 봉행했다.

1992년부터는 교도들의 신심을 증강하고 소속감을 고취해온 방생대법회의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꾀했다. 생명을 살리는 취지의 어류방생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5대 환당 종령은 1992년 6월 6일 특별유시를 발표했다. 방생법회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고아원, 양로원,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을 돕는 인간 방생불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 근본정신을 실천하고 시대의 변화 흐름에 발맞출 것을 강조한 종령 유시를 계기로 49일 불공 후 모여진 불공 회사금과 보은시를 어려운 이웃과 재난지역 주민에게 보시하는 자비 나눔의 화향문화가 크게 확산되었다. 인간방생의 정신은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하여 북한동포돕기 운동과 국내의 재난구호사업으로 확대·발전했다.

한편, 1991년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49일 진호국가불공에 교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 서원을 부여했다. 상반기 불공은 국민안과 평화통일의 기본 서원에 아기부처님의 탄신 의미에 맞춰 자녀를 위한 서원



불공을 추가하고, 하반기 불공은 우란분절에 맞춰 부모에게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으로 의미를 확대했다.

어린이·청소년 수련법회
1983년 7월 26일 수인사에서 개최한 영남교구 학생 수련대회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다. 수련대회를 통해 초발심의 열정을 한껏 드러낸 65명의 학생 불자들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남지역 청소년 포교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이를 계기로 각 사원의 학생회 활동과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고 1988년 7월 26일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여름 학생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신축을 완료한 괴산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중 단행사여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연극 경연, 산악훈련, 대동놀이한마당 등 청년의 기상을 드높이는 역동적인 프로그램과 기초교리 강의, 3.7의계 불공 실수 등 밀교적 심성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수련원에는 청소년들의 우렁찬 고함과 진언연송 소리가 가득했다.

여름 학생수련법회는 1992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어 종단을 이끌고 갈 청소년 불자들의 신심에 불을 당겼다. 훗날 종단에서 주

축으로 활동하는 스승과 교도 가운데 여름 학생수련법회에 참석했던 이들이 적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회와 여름 학생수련법회는 총지종 인재 양성의 산실이였다. 원정 대성사 제세 시 시작된 자성학교는 사원의 꽃이자 미래였다. 청년회 회원과 교무, 혹은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교도의 자녀와 인근의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었다.

사원의 관심과 지원, 신심 깊은 교사와 학부모의 열정으로 자성학교는 종단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성장했다. 자성학교 소속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연합수련법회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회 어린이 수련법회가 1994년 8월 13일 만보사에서 개최됐다.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마술공작, 캠프파이어 등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되 총지종의 가르침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 수련법회는 이후 종단의 교화영역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했다.

1988년 시작한 학생수련법회와 1994년 시작한 어린이수련법회는 매년 장소와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2000년대 이후 경주 일대 신라 문화유적



1988년 7월 26일 제1회 여름 학생수련법회

< 1984년 11월 29일 역삼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답사, 갯벌 체험, 생태공원 견학, 바다레프팅 등 다채로운 테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염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옴마니반메흙 사경 등으로 수행 프로그램의 재미와 의미를 강화했다.

경로수련법회
1988년에는 학생수련법회와 함께 전국 65세 이상의 교도가 참여하는 경로수련법회가 처음으로 괴산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8월 23일 서울경인교구와 부산경남교구, 8월 30일 충청전라교구와 대구경북교구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회 경로수련법회가 열렸다. 전국의 교도들이 총지종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불공드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감동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단발전에 힘써온 교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각별했다.

2년마다 개최하는 경로수련법회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관광을 겸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양화하고 초청가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으로 대회 500명 이상의 교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을 제공했다. 총지종 교도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불자로서의 끈끈한 정과 소명의식을 불려일으켜 현재에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오고 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육자진언의 역사와 조선조 밀교의 단편

밀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동아시아의 경우 고려 시대 밀교가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융성하였다는 사실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중국의 경우 불교의 활약을 끝으로 당조 밀교도 쇠락하였고, 강국으로 부상한 요의 주도로 동아시아 밀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빈번한 전란으로 피폐해진 중국과 달리 고려는 삼장과 밀교장, 의궤를 고루 보존하였고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학승들이 건너와 현밀의 불교를 배우고 돌아갔다.

조선말 근대 융성 대선사에 의한 육자진언의 전승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선밀불이의 풍도를 감춘 선승들의 희생과 노력이다. 조선조 상당기간 동안 아사리의 범복위에 쇠락한 선승들의 가사가 걸쳐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성철선사 같은 분도 계시어 대일여래참법, 이른바 아비라기도를 세간과 출세간에 전하였다.

육자진언과 더불어 대일여래 오종자, 대광명진언은 한국밀교를 요약한 핵심종자이자 진언으로 불리어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 대광명진언의 경우 현재는 지장진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은 육자진언과 대일여래진언을 통섭한 것이다. 세 진언은 한국불교의 화엄과 선, 관음, 지장신앙 등 모든 신행을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진언들은 한국불교 전승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개 학문의 순서는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역사를 움직인 작용인에 대해 문헌과 교학, 수행뿐만 아니라 의궤, 문화예술, 정치 외교적 관계를 폭넓게 다루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선조 최후에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동문선

유행한 진언들이 한국불교의 법맥을 반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조선시대 밀교문헌의 총집인 박세민의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에는 조선시대 유행했던 진언수행의 본 면목을 전할 문헌들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를 보면 학자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지만 언제가 번역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본란에서 당분간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외 조선조 유생의 문헌에 나타난 밀교의 기록을 가능한 게재할 생각이다.

이번에 소개할 <동문선>은 성종 9년(1478) 조선전기 문신·학자 서거정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시문을 모아 편찬한 시문선집이다. <동문선>의 출판에 주도한 이는 대제학이던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노사신·강희맹·양성지 등 23인이 작업에 참여하였고, 신라의 김인문·설총·최치원을 비롯해 조선조 인물까지 500인에 달하는 작가와 작품 4,302편이 수록되어 있다.

도량문·재사 등 불교 관계의 의례문도 195편이나 실려 있고, 승려의 시 82편, 비명과 탐명, 원효의 경서 등이 게재되어 있다. <동문선>의 찬집자들은 불교, 도교의 시문에 관대하였고, 특히 불교 문장 가운데 선승의 그것을 제

외한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하고, 그로 인한 특정한 경향마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문선> 27권 ‘제고’ 편 가운데 최자(崔滋)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후기 낙산사 주지 조유(祖猷) 선사의 기록이 있다.

낙산사 주지 선사 조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매의 힘으로써 일체의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진양공(晉陽公)이 수십 일 동안 병을 앓고 있을 적에, 천 리 밖의 낙가산으로부터 갑자기 와서 응주를 외웠는데, 바리때 밑에 막 금강저의 소리를 드날리자, 술잔 가운데에 비친 뱀이 곧 각궁의 그림자인 것을 깨달았다. 이에 상쾌하고 화평한 기운이 빨리 돌아와 우뚝하게 태산이 다시 편안한 것 같았다.

최자는 고려말 문신으로 시문에 뛰어나서 명성이 높았고, 학식과 행경에도 뛰어났다. 관고는 임금에 관리를 임명할 때 내리는 글이다. 진양공이 뱀을 보고 놀라 발병한 것을 진언으로 병의 연유를 알려 치병한 내용이다. 자못 진언은 세상을 구하고, 종파를 초월해 착한 것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진의이다. 고려말 많은 종단이 분분한 가운데 종단과 상관없이 진언에 밝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유가사지론>의 주다라니에서 볼 수 있는 말이다. 또한 착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글에서 밀교의 회통적 성격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의 맥은 조선을 거치면서 쉽지 않은 행로를 겪게 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남해 정사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빌려 행복해지고자 한다.

사람들이 태어나 성장하며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 커서 뭐될래, 좋은 대학 가야지, 무슨 대학 다니니, 빨리 결혼해야지, 언제 결혼할래, 무슨 직장 다니니, 등등의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이유는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나도 어릴 때부터 위의 말들을 자주 들으며 자랐고, 지금도 가끔은 위의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이 있으면 그냥 시험을 봤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해서 3학년 2학기부터 공부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리고 운 좋게 대학에 합격하여 진짜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학동기들과 같이 공부를 해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책 한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번 정도 봐야했지만 어떤 친구는 한번만 봐도 이해를 했다. 나는 책을 10시간을 봐야 하지만, 그 친구는 3시간만 보면 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태어난다. 아인슈타인처럼 아이큐 200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모차르트처럼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르게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서부터 가지고 온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근기의 차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현생에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근기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라는 것은 아니다. 1등 하는 학생이 1등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외모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말도 심하게 더듬고,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난 내가 정말 싫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하지만 총지종에 들어와 회사하고, 불공하고, 수행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이고 앞으로 만들어갈 이 세상의 주인도 ‘나’라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고,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아이큐, 신체적 조건, 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좋은 근기를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다면 좋은 근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된다. 회사와 보시로 복을 짓고, 참회와 불공으로 업을 닦고, 수행으로 지혜를 닦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면 된다.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행복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라고!”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교도수행체험당 ⑧

총지종 입교는 큰 축복 <상>

건화사 지종영 교도

제 이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가 친척들이 정각사에 많이 다녔는데 그 대부분을 이모님이 제도하셨습니다. 이모는 제 언니도 제도하셨습니다. 제 언니는 중학교 때부터 부처님일대기를 읽고 불교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선을 좋아하더니, 1975년 1월에 불교총지종 정각사에 입교하여 결혼해서 울산으로 이사할 때까지 확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신 후에 실보사로 옮긴 후 십수 년 간 신정회 총무를 하였고, 현재는 불교총지종 국광사 주교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염주를 놓은 적 없이 지금까지 정진을 즐겨 선정의 안온함과 환희심을 얻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이모께서 제도해주신 덕분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모께서는 저에게 빈말이라도 절에 가자는 말씀을 한 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모가 저를 제도해주셨다면 원정 종조님을 뵈 수 있는 영광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아마 제 덕이 부족한 탓이었지요. 제 언니는 원정 종조님을 뵈었는데 지금까지도 종종 그 이야길 해주시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언니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모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시집을 보내려고 사주를 보러 다니셨습니다. 사주를 보러가니 대뜸 하는 말이 ‘올해 꼭 재수 기도를 드려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선뜻 내키지 않아 거절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올해 운도 좋고 하니 까 올해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라며 이모를 설득한 것입니다. 이모는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기로 한 날에 어느 산 속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녀온 후로 몸에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프고 늘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

꼈습니다. 이모는 3년 가까이 전국의 유명한 병원, 의사는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모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는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3년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모가 아는 언니의 집에 놀러갔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천장에 가면 정각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사람이 신통력이 그리 총대. 못 고치는 병도 없고 돈도 많이 안 든다더라.” 이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절에 가기로 한 당일이 되자 알게 모르게 이모의 가슴이 참 설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러 가기 전에 드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모는 깨끗하게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스레 단장을 한 후 돈 100원을 준비하여 정각사로 향하였습니다. 그때는 버스비가 20원 할 때인데, 매번 100원을 들고 가 차비로 쓰고 남은 돈을 회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정각사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2층 집에 들어갔더니 서원당 안쪽에서 전수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모는 현재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스승님께선 너무도 근엄하고 자상한 말씨로 “무슨 걱정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나긋이 이모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모는 “몸이 아픈데, 약이 없습니다.”라고 사정을 전수님께 알렸습니다. 전수님께서 “명패에 이름을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읽어 드릴 테니 1주일간 빠지지 말고 불공을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니다. 전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곧장 명패에 이모의 이름을 적으시는데 이모는 그 순간이 너무도 환희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모는 그 다음날부터 꼬박꼬박 정각사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스승님께서 이모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그 기분이 너무도 좋아서 신이 나는 마음으로 정각사를 찾았습니다.

이모가 절에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어느 때와 같이 전수님께서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는 그 순간 어깨에 지고 있던 아주 무거운 짐을 털어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허물을 벗었나?’ 싶을 정도로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전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시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은 건강을 찾은 이모는 전보다 더 활발하게 정각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하신 신통미묘한 공덕을 이웃과 친척한테 널리 알려서 많은 분을 정각사로 제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이야길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위신력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정성이라는 것, 무엇보다 나를 이끌어주실 선지식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호에 이어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입	현	군	주	제		무	아	지	경
동		계		재	활	용		그	
	생	일		난		지	장	재	일
시		학	기		보	물		그	
바			사	투	리		부		역
견	강	부	회		수	중	전		지
	강		생	사			여	행	사
	술			전	국	체	전		지
소	래	포	구		기				
망			름		원	정	대	성	사



작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삶

홍자성(洪自誠)의 채근담(菜根譚)에 ‘성품이 조금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 없다(性燥心粗者 一事無成)’란 말이 나온다.

앞의 이 말은 ‘성미가 조금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태워 버리고, 은덕(恩德)이 부족한 사람은 싸늘한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사(死)해 버리며, 꼭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물과 같아서 이는 마치 썩은 나무와 동급이니, 생생한 기운이 이미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적을 세우고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는 허둥대는 사람, 경박한 사람 등을 꼬집어 빗대어서 정확하게 처신하라는 교훈의 말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면 ‘미쳤어, 비행기 타고 가가지.’ 라고 내뱉는 풍토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느긋하고 아름다운 품성은 눈치 빠른 사람들의 영악한 세태에 흡수되고 말아서 ‘빨리 빨리’라는 구호에 매몰되고 만 시대가 되고 말았다. 가장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민족이 시대의 변모와 함께 가장 졸속한 민족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연의 법칙에는 ‘빨리 빨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직 영겁의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빨리’라는 단어로 소를 몰아가듯 다그치고 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할 식사에서도 ‘빨리 빨리’, 줄을 서서 타야 할 버스 간에서도 ‘빨리 빨리’, 소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

해야 할 행정에서도 ‘빨리 빨리’가 판을 차지하여는 급행료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행동으로 옮겨 놓게 하는 수단인데, 말끝마다 ‘빨리 빨리’뿐이니 이렇게 서둘러 이루어 놓은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니겠는가?

교량이 붕괴되고, 배가 침몰하며, 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과거의 사례는 모두 조금함과 적당주의의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자연의 온갖 재해가 인재(人災)로 확대되고, 지하철 사고와 같은 어쭙잖은 일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일 앞에서도 시간을 내어 여가 활용을 잘함으로써 피로, 권태, 긴장 등을 해소하여야만 기력과 의욕을 회복할 수 있다. 여유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는 여유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고를 가지도록 하자.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자. 우리는 찰나의 순간일망정 놓치고 싶지 않은 바쁜 일상의 연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지나간 여제를 생각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 우리 모두가 내일의 알차고 내실있는 결실과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도 말이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엇인가 영글어 가는 삶의 여정을 만들고 내실있는 일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자. 오늘 하루도 여유를 가지고 일신(日新 又日新)하는 자세로 살자.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9월 21일 ~ 10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보명심	9/21	10,000
	우인	9/25	10,000
	김병석	10/9	10,000
	보명심	10/18	10,000
관음사	신막심	10/5	20,000
기로스승	공덕성	9/25	20,000
	수증원	9/25	10,000
	밀공정	9/25	10,000
	선도원	9/25	10,000
	법지원	9/25	10,000
	일성혜	9/25	10,000
	사홍화	9/25	10,000
	안주화	9/25	10,000
	진일심	9/25	10,000
	시각화	9/25	10,000
단음사	최상관	9/25	10,000
	연등원	9/25	10,000
	자선화	9/25	10,000
	승효제	9/25	10,000
단향사	주신제	9/25	10,000
	장정숙	10/16	10,000
	신말심	10/16	20,000
	지홍	10/11	10,000
	이수형	10/11	10,000

덕화사	법상인	9/21	20,000
	법상인	10/18	20,000
	박순연	10/18	14,000
동해사	법선	9/25	10,000
	김진화	10/4	10,000
	송민근	10/20	10,000
만보사	강명순	9/29	10,000
	홍도열	10/10	10,000
	이종구	10/11	7,000
	김정희	10/19	10,000
밀인사	덕광	10/10	20,000
	김광혁	10/18	10,000
	김재영	10/18	10,000
법천사	반야심	10/4	10,000
	박미경	9/25	10,000
법향사	인선	9/25	10,000
	정계월	9/25	10,000
벽룡사	승원	9/25	10,000
	묘원화	9/25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10/6	80,000
	부산경남교구		10/20 1,000,000
사원명무기명	하명순	9/25	10,000
	박필남	10/15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정윤영	9/25	10,000
	나석원	9/25	50,000
	박현정	9/25	20,000
세곡키움센터	김경희	10/4	20,000
	법상	9/21	20,000
수인사	법상	10/18	20,000
	해광	10/5	10,000
시법사	이순영	10/18	20,000
	서령	10/12	10,000
실보사	해원정	10/12	10,000
	황성녀	9/25	10,000
	유승우	10/10	10,000
실지사	이도현	10/10	10,000
	이서현	10/10	10,000
	이루나	10/10	10,000
	진금선	9/25	8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정동숙	9/27	80,000
	하재희	9/25	80,000
양지어린이집	구미자	10/4	10,000
	도우	10/20	10,000
자석사	지현	10/20	10,000
	김선희	9/26	8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진여	9/25	10,000

정각사	김정남	9/26	20,000
	탁상달	10/10	10,000
	노점호	10/18	10,000
	안한수	10/8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10/4	80,000
	록경	9/25	20,000
총지사	김정환	10/1	10,000
	유은혁	10/6	10,000
	백귀임	10/10	10,000
	최영아	10/10	10,000
	신현태	10/11	10,000
	무명씨	10/13	50,000
통리원	김평석	10/10	10,000
	강동화	9/25	10,000
화음사	무명씨	10/5	10,000
	홍춘자	10/5	10,000
	무명씨	10/10	30,000
	박옥자	10/15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0/10	8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기로스승	총지화	9,10/23	40,000
관성사	우인	9,10/23	200,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8>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대립하고 전쟁하며
한 쪽 입장 고집하면
지혜와 평화는 요원

”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

금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 지구촌이 어수선하더니 근래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다시 전쟁이 났다. 전쟁은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버리니 지옥,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21세기 이 인류 문명시대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전쟁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과 분노는 무섭기 그지없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뿌리는 하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는 곳도 같지만, 본래 조상도 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자신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야훼’라 하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를 뿐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종교도 같다.

다만,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자처한 예수나 선지자 무함마드(마호메트)를 부정한다. 반면에 예수(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받들며,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 이름하고 7세기의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같이 믿는 종교이다.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일 절대신을 믿는 것은 같다. 사실상 세 종교의 뿌리는 하나다. 이름만 다르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무이한 절대신을 믿는다는 면에서는 세 종교는 다르지 않다.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도 공유한다.

그럼에도 세 종교는 참으로 지독하게 싸운다. 저 옛날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 예수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판하던 예수를 로마총독에게 고발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박해하였는데,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와 같은 마구니를 만나 600만명이나 학살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국가로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을 사서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주변 이슬람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종교 영토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니 1천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쟁하는 중동, 중도 지혜로 풀어가기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상황은 종교와 영토, 인종,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유대교나 이

슬람교의 입장에서는 전쟁 밖에 답이 없는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중동 전쟁을 불교의 지혜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셨으니 전쟁도 중도의 지혜를 밝히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일 것이다. 부처님은 깨치고 보니 이 세상 만물이 나와 돌이 아니라는 ‘중도불이(中道不二)’의 지혜를 밝혔다. 중도의 눈으로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사람인 것은 같다. 각자 믿는 신과 영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인간으로서 인권과 기본 생존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쌓인 문제를 하나하나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 가면 좋을 것이다.

대립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어느 한 쪽 입장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한 지혜와 평화는 요원하고 싸움과 전쟁으로 결국 살상과 파괴의 공멸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 종교와 인권이 소중하면 남의 종교와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나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한 지혜와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제라도 중동의 전쟁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밝히어 지옥 같은 살육의 전쟁터를 평화와 행복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전쟁을 보면서 내 안에서나 우리 가족, 이웃, 사회의 대립 갈등이 있다면 바로 보고 양변을 떠나 중도 불이의 지혜를 밝혀 영원한 대자유의 세상으로 함께 향해 나가길 바란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진각종, 종조 열반 60주년 기념 음악회 성료

교성곡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진각종 회당 대종사의 삶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국악 교성곡 ‘회당’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로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02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초연 이후 21년

만에 같은 무대에서 재현됐다.

한국의 소리꾼 장사익과 염경에 명창이 솔리스트로 나섰으며, 오름 민족음악관현악단, 진각종 연합합창단과 남도창 국악인 등 300여 명이 하나가 되어 야단법석의 장을 열었다.

90분 동안 진행된 공연은 ‘출세

간’, ‘인연’, ‘교화’, ‘회향’ 주제의 4악장으로 구성되어 해방과 6.25 한국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한 회당 대종사의 삶과 여정이 담긴 16곡이 장중하고도 신명나게 이어졌다.

이날 국악 교성곡 ‘회당’ 공연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종무실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관람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종조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이라는 장엄한 시절인연을 맞이하여 이번 연주회에 함께 자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상미 기자

“종단 중흥과 위상 회복에 주력할 터”

태고종 총무원장, 취임 100일 맞아 청사진 제시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중흥과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와 조직 재정비에 적극 나

서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단 내 전통사찰 및 불교문화유산 행정지원 확대를 통해 K-불교문화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상진 스님은 “취임 후 100일 간 교구 종무원과 소통하며 자율과 자

주성을 담보해 주었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순천 선암사와 서울 봉원사의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며 “태고종 소속 전통사찰이 100곳 가까이 되는데,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킬 방안도 마련 중이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진 스님은 이와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전통종단으로서의 대외적 위상확립 △대승교화 종단으로서의 역할 확대 △종단의 전법 및 포교 기능 강화 △이웃 종단과 적극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을 핵심 정책기조로 ‘정통성의 적자종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박재원 기자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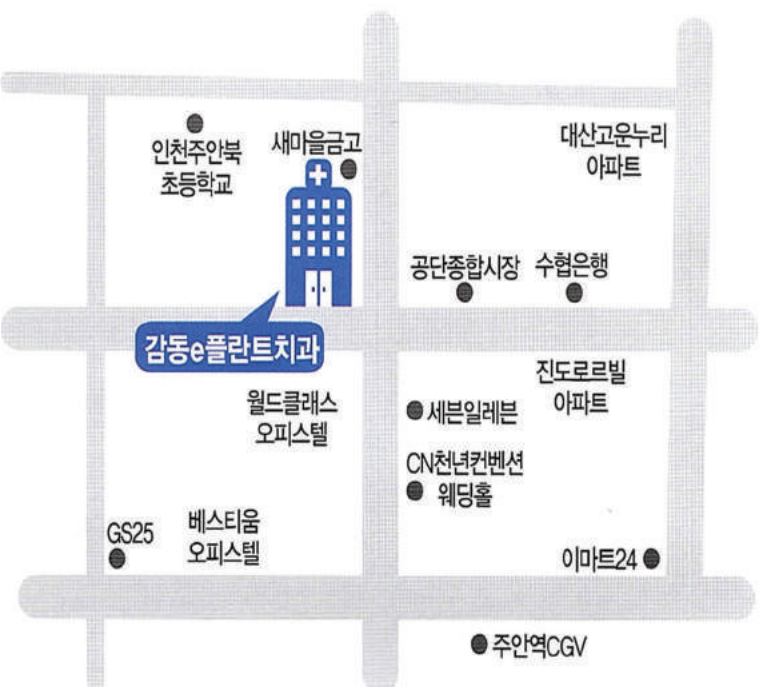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동체대비 자비행 수인회 10년 이끈

박금화 요리연구가



10주년을 맞아 통리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인회 창립부터 오늘까지 동체대비의 자비행으로 육행실천의 귀감이 되어온 터다.

10년 전 수인사에 처음으로 사찰요리 강좌를 개설해 교화의 씨앗을 심고, 강좌 수강생들을 모아 자원봉사의 터전이 되는 수인회를 발족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양을 하겠다던 서원을 오늘에까지 지켜오고 있다.

수인회는 현재 지역의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과 반찬도시락 배달 봉사, 경로효잔치, 김장나눔을 해 오고 있으며, 지역행사도 마다 않고 참여하며 직접 기금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후원 : 수협 2010-0891-3775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수인사 급식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연에 회향하는 마음으로 힘이 다할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종단과 교도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동참해주시면 더욱 큰 인연공덕을 이어가겠습니다.”

요리연구가로 더 알려진 수인사 박금화 교도가 수인회 창립

박재원 기자

창교절에 올리는 찬불가 발표회

마니합창단 최해선 단장



회를 연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각상태 불음포교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단원들의 음성공양의 수희찬탄 공덕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최해선 단장을 비롯한 단원 20여 명은 김양희 지휘자, 이지선 반주자와 함께 매주 화요일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차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 등 찬불가를 비롯해 사부대중들이 애창하는 대중가요 ‘바람’ 등 6곡을 준비 중이다. 또 이날 발표회에는 조계사 수원사 남성중창단과 동국대학교 동문 ‘동행’ 중창단이 더불어 출연하여 무대의 울림을 더한다. 동참 문의: 02-552-1080

총기 52년 창교절을 맞아 오는 12월 24일(일)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이 총지사 서원당에서 합창 발표

석관실버복지센터, 차량지원 공모사업 선정

KT&G복지재단, 업무용 경승용차 1대 기증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나석원)가 KT&G복지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사회복지기관 차량전달식’을 갖고, 지난달 18일 업무용 기아자동차 모닝 1대를 기증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101회 추계강공 보시

밀인사 성화사 실보사 운천사 자석사 신정회 / 일성혜 공덕성 총지회 정원심 지명 전수 / 서울경인지회 박정희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 관성사 김병석 성화사 오순자 무기명 교도

수인사, 효잔치 도움주신 분

통리원 서울경인교구 총청전라교구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교구 외 각 사원 대구경북지회 윤복자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 수인사 전 교도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㉑		㉒		㉓		②㉔		㉕	
				③					
						⑤			
	④								
㉖		⑥	㉗		⑦㉘				
			⑧			㉙		㉚	
⑨	㉛				⑩				
			⑪	㉜			⑫		
				⑬	㉝				
⑭⑥					⑮				

가로 열쇠

- ①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 ② '마음이 어느 한곳으로 온통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라는 뜻
- ③ 낡거나 못쓰게 된 용품을 용도를 바꾸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④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
- ⑤ 현교에서 매월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며 영가 천도를 위해 공양 올리는 날
- ⑥ 한 학년 동안 학업상 필요에 의해 구분한 수업 기간
- ⑦ 보배로운 물건
- ⑧ 표준어와는 다르게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
- ⑨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
- ⑩ 빗속에서 치러지는 경기
- ⑪ 삶과 죽음
- ⑫ 국내, 해외여행 등에 관련된 일체 제반사항을 대행하는 업종
- ⑬ 매년 가을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 경기 대회
- ⑭ 인천에 있는 서해안가의 포구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당일 코스 관광지
- ⑮ 오늘날 대한민국 밀교의 개척자이자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의 창종주

세로 열쇠

- ① 겨울이 시작되는 24절기 중 19번째 절기
- ㉑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로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
- ㉒ 밀교의 사중수법 중 재난을 소멸하는 식재법 '옴 자례 주례 준제 ... 000 사바하'
- ㉓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
- ㉔ 직선을 한자'之' 모양처럼 좌우로 그어 나간 모양
- ㉕ 1937년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 대표 견종
- ㉖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이라는 뜻
- ㉗ 석가모니부처님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나무
- ㉘ '딸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비슷하다'는 뜻
- ㉙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
- ㉚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때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과 노래를 하는 전통 민속놀이
- ㉛ 날말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당 어휘에 관해 해설한 책
- 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1972년에 역삼동에 건립된 태권도 수련장
- ㉝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함
- # 공기 중의 수분이 응결 후 미세한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 떠있는 것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옴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경인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충청전라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대구경북교구			
관운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선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❶ 수인회 10년을 맞은 회원들과 수인사 교도들 ❷ 꽃보다 할매 할배 어르신들의 점심공양
❸ 색소폰 연주에 흥겨운 한마당 ❹ 수인사 교도들이 마련한 옷나눔 장터



❺ 수인회를 처음 결성한 당시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와 그 뒤를 잇는 법일 정사와 법상 정사
❻ 통리원장 공로패를 받은 박금화 보살(가운데)과 록경 정사 그리고 수인회 김예선 총무 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도희 동장의 감사패 수여 후 법상 정사와 수인사 신정희 이남이 회장

수인회 10주년 ‘꽃보다 할매 할배 효사랑 경로 잔치’ 성료

통리원장 공로패, 포항시 표창패 등 흥과 격려의 한마당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 봉사단체 수인회(회장: 최형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꽃보다 할매할배 효사랑 경로잔치’를 지난달 21일(토) 오전 11시 꿈트리센터 야외정원에서 개최했다.

지역 어르신 300여 명과 수인회를 처음 이끈 안성 정사를 비롯해 중앙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총무부장 록경 정사 등 스승 그리고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도희 동장, 수인회 봉사자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400인 분의 공양과 선물, 수인사 교도들이 마련한 옷나눔 장터 등이 준비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장구와 타령이 울리는 사전공연으로 흥겨운 막을 올렸다. 행사는 주교 인사말과 함께 수인회 10년을 이끌어온 주역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감사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사찰요리 강좌를 열어 수료한 회원들이 모태가 되도록 수인회를 열고 10년을 함께 지켰던 박금화 교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보내 주교인 법상 정사가 대신해 수여했다. 또 수인사는 동 발전과 주민 봉사에 앞장서며 수인회 경로잔치를 비롯한 활동 등에 대한 물심양면 지원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포항시청(시장: 이강덕)도 시민 복지증진과 포항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수인회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수인사 수인회는 자원 봉사단체로 2013년도에 교도와 사찰요리 수강생들이 봉사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경로 효잔치, 취약계층 김장김치 봉사, 무료 급식 등 동체대비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는 포항시 내에서 종교 분야에서는 가장 큰 조직으로 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불교계에서는 유일한 봉사단체로 그 의미가 크다.

법상 정사는 인사말에서 “십사일반 작은 정성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함께 애써왔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부처님 자비세상의 큰 바다로 향하는 희망의 물줄기가 되도록 다같이 정진하자.”고 밝혔다.

최형분 회장은 “지역 어르신에게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을 드리고 흥겨운 공연을 보여 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어르신들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봉사에 대한 의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이도희 중앙동장은 “10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과 선행을 실천해주신 수인사 수인회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포항= 박재원 기자